

# 근대 서양미술 사조 전파한 대구미술의 부흥 꿈꾼다

## 관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 <4> 대구미술관

울산 제외 광역시중 가장 늦게 개관  
전시실 5개·다목적홀·수장고 갖춰  
60m 길이 책장 미술정보센터 눈길

전시 콘텐츠·작품 구입 전국최고 지향  
18년째 '이인성 미술상' 운영  
젊은 작가 발굴·육성 프로젝트 진행



작품 기증자들을 소개하는 '기증자의 벽'.



미술 관련 서적, 간행물을 제공하는 '미술정보센터'.

광주가 '예향(藝鄕)의 도시'로 불리는 만큼 대구도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대기 대구 화가들은 일본 유학 등을 통해서 인상파, 야수파 등 선진 서양 사조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자토사, 영과회, 향토회 등 다양한 미술모임이 꾸러지며 한국 향토성에 서양 미술 접목을 시도했고 이인성, 이쾌대 등 뛰어난 화가들이 대구를 무대로 활동했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지난 2011년 개관한 대구미술관(관장 최승훈)은 한국미술사조를 이끌었던 대구 미술의 부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최근 시립미술관이다. 지난 1999년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이 수립된 지 자그마치 12년 만에 문을 여는 등 개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방문한 대구미술관은 대구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걸리는 공원부지에 자리잡고 있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미술관 위치는 외지인뿐 아니라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분지 형태인 대구 지역을 감안했을 때 땅값이 비싼 중심지에는 미술관이 들어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대공원' 부지 안에 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야구장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와는 1.5km, '2002 월드컵' 경기를 치렀던 대구스타디움과는 1.4km, 대구육상진흥센터와는 500여m 떨어져 있어 각종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고 있다. 또 대구시가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힌 수성알파시티 부지도 인근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구미술관 위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 있다.

최근 만들어진 만큼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현재 미술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1700㎡으로, 5개 전시실, 다목적홀, 미술정보센터,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작품 기증자들을 소개하는 '기증자의 벽'이 눈에 띄었다. 대나무를 형상화한 투명한 유리 원통에 기증자 이름이 적혀 있으며, 터치스크린으로 기증자명과 작품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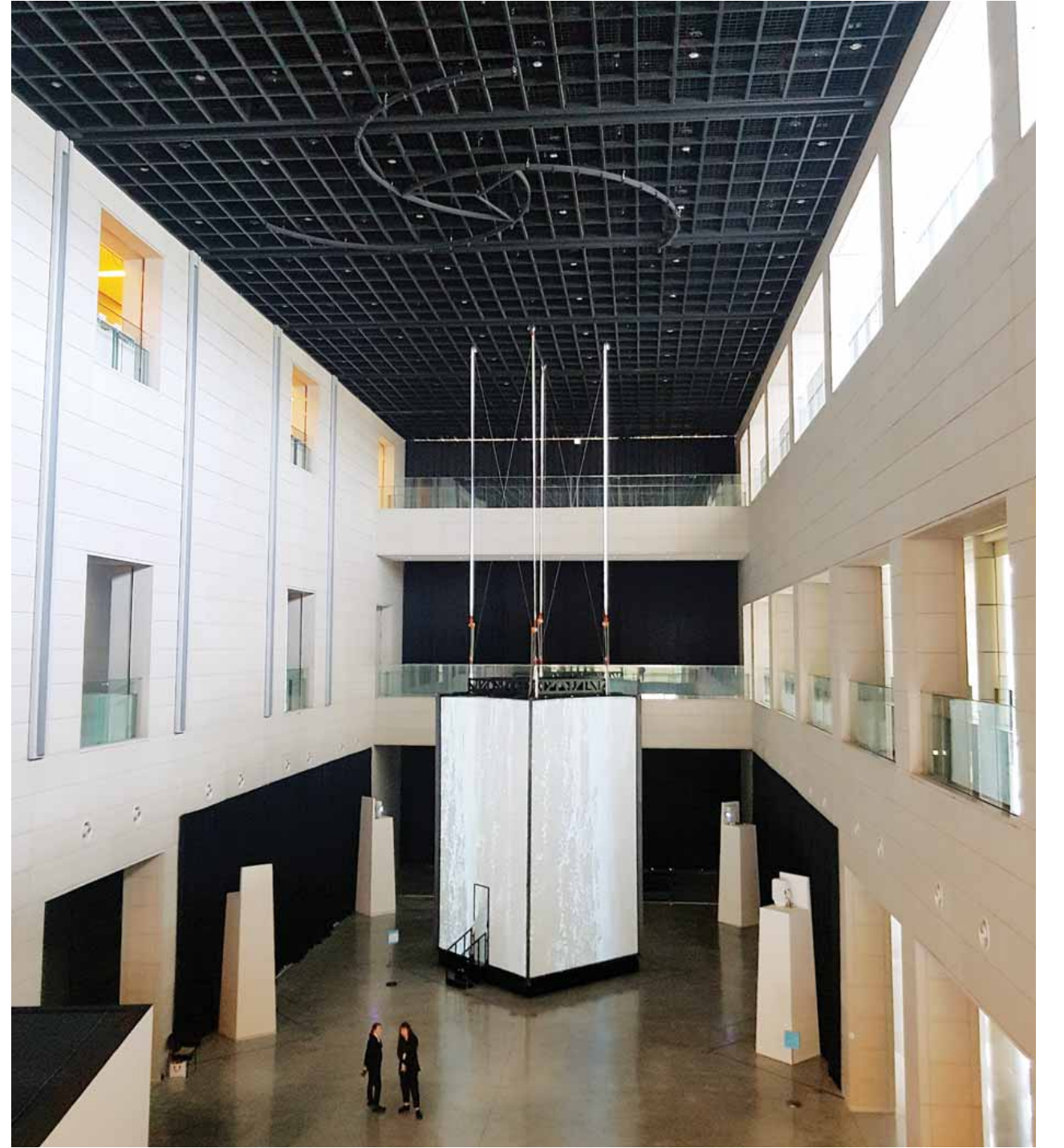
미술관 로비의 이름은 '어미홀'이다. 높이 18m, 폭 15m, 길이 42m 규모로, 대구미술관 중앙에 위치한 공간이다. 이름은 모체를 뜻하는 '어미'에서 따왔다. 1년에 한차례 작가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천장 높이가 높아 기발한 창의력을 쏟아내는 창작 겸 전시공간으로 쓰인다.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는 여름을 맞아 지난 9월17일까지 열렸던 '고스트'전 참여작가 오다니 모토히코의 '인페르노'(가로 4m×세로 4m×높이 7m) 작품이 설치돼 있었다. 실크스크린을 사각기둥 모양으로 설치해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을 투영한 작품이다.

2층 3전시실(가로 20m×세로 20m×높이 4.8m)도 인상적인 공간이다. 전시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한쪽 벽을 터서 20m 길이 통유리를 설치했다. 건물 내부이면서도 야외테라스에 나온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조명만 밝히고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였다.

안내를 맡은 권미옥 학예연구사는 "천장도 다른 곳보다 높아 설치작가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작품 사이사이로 걸어나 가면 산책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관람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소개했다.

2층 북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대미진소'(대구미술관 친구들이 소) 미니 스튜디오가 있다. 전시작가를 초청해 작품 설명을 하거나 소소한 미술관 이야기를 등을 SNS로 내보내고 있다.

3층에는 길이 60m 폭 3m 규모 도서실 '미술정보센터'가 있다. 한쪽벽에 설치된 60m 길이 책장은 단행본 7000종, 정기간



대구미술관 중앙부에 자리한 '어미홀'. 높이 18m·폭 15m·길이 42m 규모로, 창작 겸 전시장으로 쓰인다.

행물 21종, 미술서적, 도록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미술정보센터 맞은편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뷰라운지가 있다. 멀리 삼성 라이온즈파크부터 가까이는 공원부지까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도 다른 시립미술관들처럼 전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깊다. 김주원 학예실장은 "대구미술관은 전국 최고를 표방한다"고 한마디로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장품 수집이다. 연간 소장품 구입비는 12억원 수준이다. '대구·전국·근대·현대·세계적'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삼아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1점을 사도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작품을 산다는 방침이다. 권 학예사는 "미술관이 구입한 가장 비싼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 작품으로 6억8000만원에 구입했다"고 귀띔했다.

전시도 지역보다는 국제적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관이 개관한지 2년째인 2013년 쿠사마 야요이전을 유료로 개최했다. 4개월만에 관람객 33만명이 방문하며 대구미술관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었다. 지금도 국내작가와 해외작가의 교류전을 1년에 1~2회 열고 있으며 유명 작가를 초청하고 있다.

대구 미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인성 미술상'이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인성미술상'은 고(故) 이인성 화백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대구시가 제정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대구미술관이 운영을 맡고 있다. 1년 동안 두드러진 활동을 한 국내 작가 1명을 초청해 상금 5000만원과 함께 다음해에 개인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17회상을 받은 홍승명 작가가 지난 9월26일부터 2018년1월7일까지 개인전 '장밋빛 인생'을 연다. 올해 수상자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또 작가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만 40세 미만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Y artis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범위를 더 넓혀 40대(만 40~49세) 대구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Y+ Artist Project'도 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